

결국 우려가 현실로...축사엔 소 울음소리만

무안 럽피스킨병 발생 농장 가보니
 방역복 무장 20여명 방역 작업
 축사내 소 134마리 살처분
 합평 등 인근 축산농가 초비상
 “방역 외 할 수 있는 것 없어 답답”
 “백신 있으면 미리 접종 했어야”



전남도 방역공무원이 29일 전남 첫 럽피스킨병 확진 판정이 나온 무안의 한 축산농가에서 출입문을 닫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9일 오후 1시께 무안 망운면의 한 축사에 출입 금지 팻말이 세워졌다. 20여명 방역요원들은 축사 안팎에서 솜 없이 소독약을 뿌리며 차량과 인원을 삼엄하게 통제했다. 살처분 작업을 위한 굴삭기와 크레인 등 중장비가 속속 축사로 들어가는 등 긴박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긴급 방역 조치’ 입간판을 내걸고 문을 걸어 잠근 축사에서는 소 울음소리가 낮게 깔렸다.

무안 망운면 한 농장에서 전남지역 처음으로 럽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확진 소가 나왔다. 농장주가 지난 28일 고열, 콧물, 피부결절 등 증상을 신고한 뒤 29일 오전 11시께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 축사는 럽피스킨병 국내 최초 발생 이후로 소와 사람의 출입이 없었음에도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 이 축사에서 키우던 소 134마리는 모두 살처분될 예정이다. 소에게 먹일 짚단도 수백 단 쌓여 있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방역당국은 “방역 대상 ‘은 소 뿐 아니라 축사 내외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물건이 포함된다’며 ‘최소 3일 동안 방역작업을 한 뒤 소를 모두 살처분 한 뒤에야 축사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에서 럽피스킨병이 발생하자 방역 작업이 최고 단계로 상향됐다. 럽피스킨병이 발생한 농가 주변 10km 이내 515개 농장과 무안 전체 1285농가와 축사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작업이 진행됐다.

렙피스킨병 발생 농가와 가까운 인근 축사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무안에서 40년째 농장을 꾸리며 현재 500마리 소를 키우고 있는 김시호(64·전국한우협회 무안지부장)씨는 “비상사태인데도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40년 소 키우면서 처음 듣는 병명이다.

? 럽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모기와 같은 흡혈 곤충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과 사료 등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병에 걸린 소는 고열, 피부 결절(단단한 혹)과 함께 우유 생산량 감소, 유산, 불임 등의 증세를 동반한다. 폐사율이 10% 이하이고 구제역과 달리 공기로 퍼지진 않지만 전파력이 강해 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김씨는 “소를 키운 20년 동안 질병으로 속 썩은 적은 없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불안한 마음 더 크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조심한다고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방역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떨궜다.

무안과 인접한 합평지역에도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합평지역에서는 100여개 농가에서 소 3000여마리를 키우고 있다.

윤문석(62) 전국한우협회 합평지부장은 “사육

값 폭등에다 한우값 폭락으로 한참 시름하다 숨통이 트이나 싶더니 이번엔 럽피스킨병이 터져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윤씨는 1년 5개월 전 인근 농장에 브루셀라병이 퍼져 소 160마리를 살처분한 악몽을 떠올리며 “최근에 다시 소를 키워보려고 소 15마리를 축사에 들었는데, 불과 8km 떨어진 곳에서 렙피스킨병이 발생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평도 렙피스킨병 발생지로부터 반경 10km 내에 포함돼 매일 같이 축협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며 “매일 소독을 열심히 하고 축사를 관리했는데, 병을 옮기는 모기·파리가 수십 km씩 날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발생지와 한참 먼 무안 한복판에서 발생하더니 황당하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

/무안·유연재·김민준 기자 yjyou@

제자 폭행 어머니까지 성추행 운동부 코치 항소심 벌금형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제자를 때리고 어머니까지 성추행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벌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운동부 코치인 A씨는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의 한 고교에서 운동부 학생 B군의 머리와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친구들과 장난을 쳤다는 점과 양말이 더럽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운동부 학부모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B군의 어머니를 식당 밖으로 불러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군의 대학 진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아동학대 범행과 강제추행의 범행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교할 때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돈 안 준다” 어머니 위협하고 불 지른 30대 항소심 징역형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가연성 스프레이 분사구에 불을 붙여 위협하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특수준속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새벽 5시께 광주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녹방지용 스프레이 분사구에 불을 붙여 어머니 B(62)씨를 위협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에게 5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돈이 없다’고 하자 이같은 범행을 했다.

B씨가 놀라 달아나자 집으로 돌아온 A씨는 휴대용 부탄 가스통에 구멍을 내고 불붙은 가스레인지에 던져 집에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어머니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다른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어머니 B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법정서 새마을 금고 이사장 자해...흥기 숨기고 검색대 통과

병원 치료...법원 보안관리 허술
징역 3년·벌금형 선고 법정 구속

광주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해를 시도해 법원의 보안관리가 허술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10시 20분께 광주지방법

원의 한 형사법정에서 배임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 A(79)씨가 선고 이후 피고인 대기실에서 흥기로 자해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의 한 새마을 금고 이사장 직을 맡고 있는 A씨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205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재판이 끝난 뒤 교도관들과 함께 대기실에서 구속 전 신상정보를 확인하던 중 옷 안에 숨겨둔 흥기를 꺼내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가했다.

광주지법 법정동에는 금속탐지기를 하는 검색대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지만 A씨는 흥기를 갖고 아무런 제지 없이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흥기를 분리해 3~5cm 가량의 칼날 부분만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12월에는 광주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판 도중 음독을 시도했다. 당시에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독극물을 법정까지 숨기고 들어왔다. 이후 허술한 보안 검색이 문제가 됐으나 이번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0년에는 광주지법에서 재판 도중 피고인이 교도관을 흥기로 찌르고 도주하기도 했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소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동우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